

오피니언

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 칼럼

光日春秋

윤방부



유난히도 무더운 날씨가. 대개 광복절이 지나면 그레도 아침저녁으로 신선함을...

배, 국토의 1%, 서울특별시 면적의 1.6배다. 묘지당 평균 면적은 15평으로 주택면적 6평의 2배 반이다....

지금 자체 기억하지는 못 하지만 1년에 20만여 개의 묘지가 만들어지며 면적으로 보면 거의 1.2배가 잠식당하고 있으며 현재 전국의 분묘 수는 약 2천만 개로 학교용지의 4배, 공장용지의 2...

전·현직 대통령의 가족장 결의대회

이 여러 얘기를 하는 중에 중국에는 분분이 없다는 것이다. 중국처럼 유교문화를 숭상하는 나라가 이게 웬일이냐 싶었다. 중국은 연간 평균 사망자가 600만 명에 달해 매년 엄청난 규모의 땅, 그 중에도 명당이라고 일컫는 묘지가 묘지로 변했다고 한다. 그러나 모택동이 이끄는 혁명정부가 1956년 화장을 법으로 정하고 시신을 관에 넣어 매장하는 토장제도를 금지시키는 '장묘문화혁명'을 시작했고, 이때부터 40여 년이 지난 현재 중국 어디에서나 분묘들을 한 무덤은 거의 볼 수 없다고 한다. 한발 더 나아가 북경 시에서는 장묘문화혁명 20주년을 맞아 1994년부터 시작한 운동은 시신을 화장한 뒤 그 유골을 바다에 뿌리는 것이다. 특히 1979년에 사망한 주은래 전 국무원 총리는 유언에 따라 화장했고 그 유골이 비행기로 전국에 뿌려졌고, 1989년 호요방 총서기가 사망했을 때 부인의 희망에 따라 화장된 유골이 강서척지에 뿌려졌다. 중국의 국립묘지인 베이징 '팔보산 혁명묘'는 지도자, 애국자, 과학자, 문학자, 예술가, 고급기술자 등 3천여 명이 묻혀있고 묘지크기는 1~2m로 모두 납골묘다. 어린 시절 초대 대통령의 생일날이 되면 내가 다니던 중고등학교가 동원되어 했을 때 정말, 진정으로 슬퍼하는 국민들의 모습이 지금도 생생하다. 공과아 어떻든 그분은 대한민국의 건국 아버지임에 틀림없다. 대통령이 운명했을 때 어떤 장례를 치러야 할까! 법률적으로 국장, 국민장, 가족장 등이 있다고 한다. 최근에 운명한 전직대통령 두 분 중 한 분은 국민장으로, 화장해 고향마을로 갔고, 또 한 분은 특별히 국민장으로 서울 현충원에 모셨다. 장례가 국장이나, 국민장이나를 따지고 싶지는 않다. 아직도 계속 대통령은 현재대로라면 5년에 한 명씩 나올 것이고, 또 그들이 인간인 이상 운명할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전직이던 현직이던 대통령의 주검에 대한 장례형식에 대하여 특별한 관심은 없으나 죽으면서까지 OOO대통령은 국민의 귀감이 됐다는 이 한마디는 듣고 싶다. 한국의 주은래, 호요방은 언제 오실까? 그리고 광양에서 만났던 장례문화를 바꾸기를 원했던 그 젊은이들이 지향하고 희망하고 또 갈망하던 말, "우리나라의 대통령을 했던 분이나 대통령이 정말 장례문화의 귀감"이 되었으면 하던 그 바람들이 생각날 뿐이다. 현직이던 전직이던 대통령의 장례 형식에 대한 이러한 기사가 보고 싶다. 영어로 한번 쓸까? "He deserved it, but he didn't." 이 한마디를.. (가천의과대학교 부총장 겸 석좌교수)

서울운동장에서 생일을 찬양하는 합창을 하곤 하였다. 그 당시 그분이 대통령이니 당연히 생일에 동원되어 합창을 하는 것으로 알았고, 또 그분은 우리나라 사람 중에서 공부도 제일 잘하고, 훌륭하며, 우리가 존제해 하는 분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4·19혁명으로 그분이 하야(下野)할 때 고등학교 3학년이었던 필자는 모 신문사가 불에 타는 것을 보고 박수를 치고 내가 믿었던 그분이 최악의 지도자(?)로 독재자(?)였기에 결국 하야해서 '하야'로 망명하였다는 것을 언론보도를 접하고 어리둥절 하였다. 그 후 하야할 때 육하고 비난하던 때와 달리 이곳 저곳에서 안타까워 우는 국민들을 보았고 운명

했을 때 정말, 진정으로 슬퍼하는 국민들의 모습이 지금도 생생하다. 공과아 어떻든 그분은 대한민국의 건국 아버지임에 틀림없다. 대통령이 운명했을 때 어떤 장례를 치러야 할까! 법률적으로 국장, 국민장, 가족장 등이 있다고 한다. 최근에 운명한 전직대통령 두 분 중 한 분은 국민장으로, 화장해 고향마을로 갔고, 또 한 분은 특별히 국민장으로 서울 현충원에 모셨다. 장례가 국장이나, 국민장이나를 따지고 싶지는 않다. 아직도 계속 대통령은 현재대로라면 5년에 한 명씩 나올 것이고, 또 그들이 인간인 이상 운명할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전직이던 현직이던 대통령의 주검에 대한 장례형식에 대하여 특별한 관심은 없으나 죽으면서까지 OOO대통령은 국민의 귀감이 됐다는 이 한마디는 듣고 싶다. 한국의 주은래, 호요방은 언제 오실까? 그리고 광양에서 만났던 장례문화를 바꾸기를 원했던 그 젊은이들이 지향하고 희망하고 또 갈망하던 말, "우리나라의 대통령을 했던 분이나 대통령이 정말 장례문화의 귀감"이 되었으면 하던 그 바람들이 생각날 뿐이다. 현직이던 전직이던 대통령의 장례 형식에 대한 이러한 기사가 보고 싶다. 영어로 한번 쓸까? "He deserved it, but he didn't." 이 한마디를.. (가천의과대학교 부총장 겸 석좌교수)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시설

지자체 자율통합 주민의사 반영돼야

행정구역개편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행정안전부가 당초협의의를 거쳐 26일 자율적으로 통합하는 시·군·구를 획기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내용을 담은 자원계획안을 발표한 것이다. 우리가 지자체 자율통합에 관심을 갖는 것은 통합대상으로 거론되는 전국 10개 지역 가운데 여수·순천·광양, 목포·무안·신안 등 전남지역 2곳이 포함됐기 때문이다. 이들 지역은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통합논의가 있어 왔지만 각 지자체의 이관지런 사정 때문에 갈등만 표출하고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의 이번 자원계획안 발표가 이들 지자체의 통합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있다. 지자체 통합은 원칙적으로 바람직하다는 판단이다. 지금의 행정구역은 100년 전에 만들어진 것이라 효율적 지역 발전을 저해해온 측면이 강하다. 최근의 국제 추세는 보더라도 기존의 복잡한 행정구역은 통폐합을 통해 단순화될 필요가 있다. 지자체 통합은 시대적 당위성이 있다 하겠다. 문제는 지자체 자율통합이 그리 쉽게 풀릴 사안 아니란 데 있다. 정치권의 생명줄인 선거구제와 맞물려 있고, 공무원들의 자리와도 연동된 탓이다. 지자체들의 주도권 다툼도 만만치 않다. 큰 지자체는 작은 지자체를 흡수통합하려 하고, 작은 지자체는 이에 저항해온 것이 시간의 사정이다. 정부는 다음달 말까지 지자체의 통합 건의를 받아 해당 지역 지방자치회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주민투표를 하는 방법으로 연달아 통합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결국 자율통합의 성패는 지역 주민들의 여론에 달려 있다. 따라서 자율통합은 민주적인 의견수렴과 공론화 등 절차적 자율성과 정당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인센티브를 통한 정부 주도의 인위적인 통합이 자치역량 강화와 지역의 책임성 확보라는 지방자치의 취지를 훼손해서는 안 될 것이다.

기술자립만이 우주강국 도약 앞당긴다

우리나라 첫 우주발사체인 나로호(KSLV-1)가 궤도 진입에 실패함으로써 대한민국 우주개발역사도 미뤄졌다. 나로호에 실려 우주로 쏘아 올려진 '과학기술위성 2호'는 대기권에서 소멸한 것으로 잠정 결론이 내려졌다. 그러나 우주강국을 향한 우리의 꿈은 결코 포기할 수 없다. 이번 일을 우주강국 도약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 무엇보다 실패 원인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이뤄져야 우리의 우주기술을 한 단계 높일 수 있다. 나로호 개발과정 전반을 되짚어 보면 서 드러난 문제점들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우주개발에 있어서 성공한 기대감은 금물이다. 기초적인 기술부터 차근차근 쌓아 가면서 원천기술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한쪽 페어링은 제 때 떨어진 반면 반대쪽 페어링이 위성 분리단계에서 떨어져 궤도에 진입하는데 장애를 줬다는 것이 교육과학기술부의 설명이다. 페어링 분리는 발사체 비행 성공에 필수적인 고난도 기술이다. 나로호 프

로젝트를 통해 우리는 기술 종속국의 비애를 실감했다. 의욕만으로는 우주강국 도약이 불가능하다는 것도 새삼 확인했다. 우리 스스로 페어링 분리와 같은 핵심 기술을 개발할 수밖에 없다. 부분적 실패에 지나치게 실망하거나 좌절할 필요는 없다. 비록 궤도진입에는 실패했으나 로켓의 설계 조립 운영 등 발사 전 과정에 걸쳐 기술과 노하우를 축적했다. 나로호 개발과정 전반을 되짚어 보면 서 드러난 문제점들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우주개발에 있어서 성공한 기대감은 금물이다. 기초적인 기술부터 차근차근 쌓아 가면서 원천기술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한쪽 페어링은 제 때 떨어진 반면 반대쪽 페어링이 위성 분리단계에서 떨어져 궤도에 진입하는데 장애를 줬다는 것이 교육과학기술부의 설명이다. 페어링 분리는 발사체 비행 성공에 필수적인 고난도 기술이다. 나로호 프

의료 칼럼

강상범



알코올 문제는 흔히들 가족병이라고도 말한다. 과음을 하거나 술 문제가 생기면 그 당사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즉시 가족들에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알코올을 섭취하게 되면 평소와 약간 다른 조종하던 사람들도 정신 행동이 변하면서 언어폭력을 쓴다든지, 신체적인 폭력을 쓴다든지, 기분을 과격하게 만든다, 이유없이 가족들에게 생트집을 잡아서 가족들의 마음을 크게 손상시킨다. 또한 가족들에게 직접적으로 공격

쓴 터널의 한복판에 서 있다. 특히 구조조정, 일자리 부족, 물가상승의 직격탄을 맞고 있는 서민의 입장에서 이토록 고달픈 현실을 달래어 줄 수 있는 술의 유혹이 그 어느 때보다 클지 모른다. 그런 이유에서인지 요즈음 알코올중독 환자의 수가 급증했고 이를 지켜보는 치료자의 입장에서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이 들기도 한다. 고통스럽고 힘든 현실에서 술의 위로는 그 어느 때보다 달콤하다. 술에 취하는 날이면 알콜을

알코올 중독과 가정파괴

적이고 파괴적인 행동을 보이지 않더라도 자신이 할 일을 게을리하거나 식사를 하지 않고 누워만 있다든지, 직장에 출근이나 결근, 사회적 약속의 불이행, 술병으로 인한 입원 등으로 가족들에게 걱정을 끼치는 일을 흔히 볼 수 있다. 이렇게 되면 가족들 특히 부인을 비롯한 부모, 형제들까지도 말 못할 고민과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서 불안 신경증이나 우울증 등의 정신병리에 시달리게 된다. 자녀들은 또한 자존심이 심히 저하되면서 자신감을 잃고 의기소침해지면서 친구들로부터 멀어지고, 자신의 학업이나 생활에 집중력을 잃게 마련이다. 이에 따라 부인과는 이혼 또는 별거 문제로 발전하며, 자녀들은 일탈행동과 반사회적 행동으로 이어지게 돼 결국은 가정 파괴로 인해 사회문제화되는 것이다. 이렇게 알코올중독은 가정의 기반단위를 손상시켜 결국 사회문제를 일으키는 원인이기 때문에 사회 전체가 관심을 갖고 조기에 발견해 조기에 전문적인 상담·치료를 실시해야 한다. 미국발 불황과 금융위기가 전 세계를 강타했고, 우리나라 역시 불황의 스티

현실을 잠시나마 잊을 수 있어 좋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술에서 깨고 난 후의 현실은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은 채 점점 더 나빠지게 되게 마련이다. 점차 술에 취한 날이 늘어날 것이고 술 없인 하루도 살 수 없을 지경에 이르기도 한다. 부체는 점점 쌓여가고 몸과 마음이 점점 망가져 간다. 현실을 몰라보게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더욱 고통스러워지고, 더 나아가서는 삶을 포기하고 싶어 지기도 하고 자살하는 심정으로 매일 술잔을 들기도 한다. 하지만, 치료현장에 있다 보면 누구보다 깊은 인생의 바닥을 경험했다가도 조금씩 인생의 행복을 되찾아 가는 사람들도 많이 만나게 된다. 실패는 보다 현명하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일 수도 있다. 내가 잃은 것, 내가 갖지 못한 것이 초점을 두기보다는 내가 아직 갖고 있는 것, 내가 아직 도전할 수 있는 것에 초점을 두고 이를 실천에 옮길 수 있는 지혜가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기이다. 술로부터 자유스러워지는 것이 가족을 지키는 길임을 명심해야 한다. (다사랑병원 원장)

장례식장, 조문예절 바로 알고 가자

우리 주변엔 많은 예법이 있지만 그중에서도 상(喪)가에 문상을 갔을 때 지켜야 하는 최소한의 예절을 알려드려야 한다. 상가에 갈 때 화려한 옷을 입지 않는 것은 기본인 첫째이다. 두 번째, 대부분의 사람이 실수하는 것은 상주에게 "빈소의 위치가 어디냐"고 묻는 일이다. 상주가 부고를 알리기 위해, 혹은 먼저 전화를 했을 때가 아니라면 상주에게는 빈소 등을 묻기 위해 전화를 하는 행동은 하지 말아야 한다. 세 번째는 상주나 유족에게 "안녕하세요" 하며 인사하는 일이다. 상을 당한 사람이 안병할 리 만무다. 그리고 오랜만에 만나게 되는 사람들과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게 되는데 과거에 웃고 떠드는 경우가 있다. 이것도 상주나 유족에게 예가 아니다. 마지막으

일본인들은 신재생 에너지로서 집안 일개 천의 물이나 뜨거운 온천수로 전기를 만들며 생활주변의 자연을 활용하고 있다. 한 온천 호수는 140도의 온천수로 터빈을 돌려 70가구가 쓸 수 있는 전기를 만들어 낸다. 그곳 전기 분야 전문가들은 생활 주변의 자연 에너지를 제대로 활용하면 일본 전력 수요의 60% 이상을 얻을 수 있다는 연구결과도 나왔다고 한다. 그렇게 열심히 하는 일본인들도 아직은 자연 에너지의 활용 비중이 1% 미만이라고 한다. 우리는 어떤가, 우리의 경우 해마다 장마철에 엄청난 폭우가 내리지만 99% 전부가 그냥 강으로 바다로 흘러가 버린다. 광주·전남에도 올해는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졌다. 그렇다면, 이런 빗물을 모아서 재활용하고 전기를 만들어 내는 방식으로 쓸 수는 없을까? 너나 할 것 없이 더 큰 미래를 바라보는 에너지 대책을 세워야 할 때라고 본다. ▲이미경·광주시 북구 태령동

기고

윤규옥



신종플루의 치료에는 고용량 비타민 C주사 및 고용량 분말 복용이 매우 효과적이다. 신종플루의 백신생산까지는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또한, 백신은 예방목적일 뿐이다. 이러한 환자에게는 신속한 치료가 필요하다. 현재 치료약으로는 타미플루, 리렌자 등의 항바이러스제가 있지만 값도 비싸고 물량도 부족하다. 그러나 바이러스 질환치료에는 오랜 역사를 가진 비타민 C 고용량요법이 매

와 분말복용요법으로 치료해 단 한 명의 어린이도 불구로 남지 않고 전원 완치시켜 당시의 의학계에 발표할 바 있었다. 그분은 "소아마비는 고용량 비타민 C치료로 96시간 내에 완치가 가능하다"고 하면서 "재발 누가 시도라도 해보라"고 호소했다. 그러나 그 후 소아마비 백신이 나오면서 이 치료법은 별 필요가 없게 되었다. 고용량 비타민 C치료는 관심 있는 의학자들에게 의해 발전을 거듭하면서 현재

신종플루 비타민 치료 왜 안 하나

우 효과적이고도 저렴하고 안전하다. 또 이는 많은 의학자에 의하여 입증된 치료법이다. 재미 의학자 하버근은 그의 저서 '숨겨진 비타민 C 치료법'(2003·문화마당출판)의 첫 장에 이런 치료법이 주류의 학계에서 외면당해 그 당시 유행한 조류독감 SARS 치료에 이용되지 아니하였음을 개탄하고 있다. 그는 마음을 굳게 닫은 주류의학의 배타성이 또다시 세상을 공황상태로 몰고 가고 있다고 비난한다. 이 우수한 치료법이 의학계의 관심을 끌지 못한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물론 찬반양론이 현재도 엄중하고 있지만 점차 인정해가는 흐름이고 FDA도 비타민 C의 항바이러스 항암 효과 등을 인정해가는 추세다. 이 치료법은 반세기이상의 역사를 갖고 있어 대부분 미국 의학자에 의하여 개척되고 연구되었고 현재도 많은 여러나라 의학자에 의하여 연구 발전되고 있다. 이 치료법의 개척자의 한 분인 클레나 박사는 (1907~1984)는 소아마비가 창궐하던 1984년 당시 60명의 소아마비환자를 이 고용량 비타민 C주사

에 이르고 있다. 이 정도로 이 치료법이 전 연구되었다면 찬반논쟁이 벌어지지더라도 지금과 같이 치료가 절실할 때는 당연히 채택되어야 할 것이다. 그 연구에 임상결과를 검토하는 것이 사리에 맞는 일이다. 타미플루에만 의존 말고 비타민화학회나 이 분야를 연구하고 계신 교수들도 적극 알려 의료인이 자신을 갖고 치료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이다. 임증이 되지도 않은 감기의 효과를 크게 보도하는 메스컴도 이런 좋은 치료법을 더 좀 깊이 캐고 알아보고 이를 외면한 주류 의학계에도 쓴소리를 내야 될 것이다. 본인은 시골 개원의로서 이 치료법에 대한 학문적·과학적 이론으로 주장할 수는 없지만 이런 치료에 대한 문헌 논문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본인이 이 치료로 계절성 독감이나 기타 바이러스질환을 치료해 본바 그 효과가 너무 우수하여 스스로 놀라고 있다. (목포성모의원장·의학박사)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無等鼓

세계의 금융대통령으로 불리는 벤 버נק이 미국 연방준비은행(FRB)의장에겐 별명이다. '헬리콥터 벤'이다. 지난해 2002년 미국경제 침체에 그는 "경제 살리기(디플레이션 예방)를 위해서 중앙은행이 헬리콥터로 돈을 뿌려야 한다"는 식의 자극적인 발언을 쏟아냈다. 이 시기 워싱턴 금융가에서는 그에게 '헬리콥터 벤'이라는 별칭을 붙여

유'가 아니다. 금융위기 초기 대응이 미숙했다는 비난도 있었지만, 과감한 유동성 공급과 금리 인하로 없었던 안 될 존재로 떠올랐다. 누리엘 루비니 뉴욕대 교수마저 "(버뱅크는) 이번 경제위기가 과거 대공황과 같은 상황으로 치달을 수 있다는 점을 깨닫고 매우 공격적으로 필요한 조치들을 취했다"고 긍정 평가할 정도다. 민주당 소속인 오바마 미국대통령도 공화당 사람들 그들 의장으로 제지했다. '개울 건너면서 말을 걸아달 수 없는' 상황이긴 해도, 대공황 전문가로서 버뱅크의 진가를 확인했다는 데 더 무게가 실리고 있다. 문제는 앞으로다. 실업률이 10%에 육박하는 상황에서 통화량 흡수와 정책금리 인상이라는 뒷수습을 해야 한다. 자칫 경기가 다시 침체될 수 있다. 하늘 높이 올라가다가 사라져버린 '나로호' 신세가 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유사한 통화정책을 펼치고 있는 우리 금융 당국도 고민해야 할 숙제다. /김주정 경제부장 jnews@kwangju.co.kr

헬리콥터 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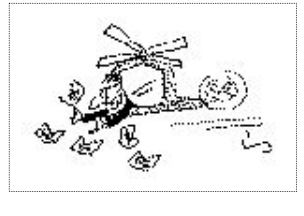


Table with 2 columns: 광 卍 日 報 and The Kwangju Ilbo. Contains contact information, subscription rates, and publication details.

'신재생 에너지' 미래 내다보는 대책 세워야

일본인들은 신재생 에너지로서 집안 일개 천의 물이나 뜨거운 온천수로 전기를 만들며 생활주변의 자연을 활용하고 있다. 한 온천 호수는 140도의 온천수로 터빈을 돌려 70가구가 쓸 수 있는 전기를 만들어 낸다. 그곳 전기 분야 전문가들은 생활 주변의 자연 에너지를 제대로 활용하면 일본 전력 수요의 60% 이상을 얻을 수 있다는 연구결과도 나왔다고 한다. 그렇게 열심히 하는 일본인들도 아직은 자연 에너지의 활용 비중이 1% 미만이라고 한다. 우리는 어떤가, 우리의 경우 해마다 장마철에 엄청난 폭우가 내리지만 99% 전부가 그냥 강으로 바다로 흘러가 버린다. 광주·전남에도 올해는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졌다. 그렇다면, 이런 빗물을 모아서 재활용하고 전기를 만들어 내는 방식으로 쓸 수는 없을까? 너나 할 것 없이 더 큰 미래를 바라보는 에너지 대책을 세워야 할 때라고 본다. ▲이미경·광주시 북구 태령동